

5월 29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는 1791년 신해박해부터 1888년 병인박해 때까지 순교한 이들이다. 한국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는 1759년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였고 1783년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 무렵 천주교 신앙을 알고 교리를 공부하여 세례를 받은 그는 조상 제사 문제로 체포되어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받았으나,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며 신앙을 고백하다가, 1791년 12월 8일 순교하였다. 다른 동료 123위도 모두 이렇게 신앙을 수호하다가 순교하였다. 이들은 2014년 8월 16일에 시복되었다.

(Ⅱ권)순교자 공통: 여러 순교자, 부활 시기, 1792.

(Ⅲ권)순교자 공통: 여러 순교자, 1698.

독서 기도

제2독서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시복 자료집 제1집〕,
23-25, 31-33면 참조)

천주의 종교는 사교가 아닙니다

나(윤지충)는 음력 10월 26일(양력 1791년 11월 21일) 저녁에 진산 관아에 도착했고, 저녁을 먹은 후 군수 앞에 소환되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너 그 무슨 지경이냐, 그래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되었느냐?” 나는 대답했다. “제게 묻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의 질문과 나의 답변은 계속되었다.

5월 29일

“(들리는) 소문이 매우 심각한데, 근거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네가 사교(邪教)에 빠져 있다는 게 사실이나?” “저는 전혀 사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천주의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교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길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복희(伏羲) 이후 송(宋)조의 성현들에 이르기까지 실천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우리 종교에는 계명들 가운데 (남을) 혈뜬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단지 천주의 종교를 따를 뿐, 아무도 비판하거나 비교할 마음은 없습니다.” “시랑(豺狼, 승냥이와 이리)이라는 동물도 제 부모를 향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어떤 새들은 부모를 위해 제물을 바칠 줄 안다. 하물며 인간이야 마땅히 것처럼 처신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공자(孔子)의 서적도 읽지 않았느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모든 규정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것이며, 끝으로 관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비로소 효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천주교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30일 새벽에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고,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감영으로 인도되었으며, 감사는 오후에 우리를 그 앞에 소환하여 말했다. “윤이라는 자가 누구이며 권은 누구냐?” 우리는 저마다 대답하였다. 감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나는 대답하였다. “너희가 일상 하는 일이 무엇이나?” “어려서는 과거 시험 공부에 전념하였고, 얼마 전부터는 마음과 행실을 다스리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경서를 공부하였느냐?” “예, 그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네 마음과 행실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우리 경서가 충분하지 않느냐? 왜 사교에 빠져 방황하느냐?” “저는 조금도 사교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천주의 종교가 사교가 아니더냐?” “하느님은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요 위대한 아버지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것을 사교라

5월 29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교리의 간단한 요약을 내게 해 보 아라.” “이곳은 규범을 논하는 장소이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십계명(十誡命)과 칠극(七克)으로 요약됩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이 책들을 받았느냐?” “그를 지목할 수는 있겠지만, 내게 이 책들을 빌려 준 때는 임금님의 금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니 그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엄중한 금령이 있는 오늘에 제가 만약 그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저는 그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응 송

◎ 믿음을 보존하려고 싸우는 우리를 하느님이 굽어보시고 천사들이 바라보시며 그리스도 친히 지켜보시니, *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월계관을 받아 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행복하랴! (알렐루야.)

○ 모든 힘을 다하여 무장하고 바른 정신과 완전한 믿음과 뜨거운 열성으로 임종의 고통을 준비들 하세.

◎ * 하느님.

마침 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